

# 허물 참회... 조상 천도하는 날

## “탐진치 중생심 녹여 해탈의 삶을 삼시다”

### 우란분절의 유래와 현대적 의미

불교에는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신 의미를 되새기고 수행정진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고유의 명절이 있다. 가장 큰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과 부처님이 출가한 것을 기념하는 출가절(음 2월8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성도절(음 12월8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열반절(음 2월15일)을 불교의 4대 명절이라 하는데, 여기에 스스로의 허물을 참회하고 돌아가신 부모의 넋을 기리며 천도하는 우란분절(음 7월 15일)을 더해 예로부터 불교의 5대 명절로 삼고 있다.

14일 우란분절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천도재와 방생법회, 효도잔치 등 우란분절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행사들이 일제히 거행됐다. 이에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우란분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의도로 우란분절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 다시 살펴보는 장을 마련했다.

#### ◇우란분절의 유래

우란분절의 유래는 <우란분경>에 잘 나타나 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한사람인 목건련이 6신봉을 얻은 후 부모를 찾아보니 죽은 어머니가 아귀도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 부처님께 구제할 방법을 물었다. 부

처님은 지금 살아 있는 부모나 7대의 죽은 부모를 위하여 7월 15일에 여러 가지 음식과 옷 등을 갖추어 시방의 대덕스님에게 공양하라 하였다. 목건련은 가르침대로 행하여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였다는 데서 우란분절은 유래한다. 우란분절에 담긴 의미는 비록 진리를 깨닫기 위해 부모와 인연을 끊고 출가한 승려이지만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으며,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승보에 대한 존경의 표시지만 이는 나아가 스스로 선을 행함으로써 그 업이 모든 중생에게 미친다는 의미도 된다. 이런 뜻에서 우란분절의 취지는 보다 널리 일반사회에 확산되어야 한다.

####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 우란분절

우란분절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어 왔다. 이날은 스님들이 하안거를 마치는 날이기도 한데, 이때에 스님들이 자신의 허물을 대중에게 고백하는 날이라 하여 백중(白衆)이라 불렀으며, 백종(白鐘), 백중(百種), 중원(中元) 또는 망혼일(亡魂日)이라 부르기도 했다.

우란분절의 시기가 봄에 파종한 각종 과일과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때이기도 해서 백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놓았다는 의미로 백중(百種)이라 했다. 또 농민들이 7월에 이르러 세벌 김매기인 만두레를 끝낸 다음 힘든 농사를 마무리 짓고 밭뒤꿈치를

### 목련존자 어머니 구제한 일서 비롯 소원 이루어면 공덕 베풀라는 교훈 경로잔치·방생·선열추모로 확대를

깨끗이 씻는다 하여 백중(白鐘)이라 불렀다. 중원(中元)은 도가적 표현으로 천상선관이 1년에 세 번(上·中·下元) 인간의 선악을 살피는 때를 삼원(三元)이라고 하였는데 정월 대보름과 7월 보름, 그리고 10월 보름이 삼원으로, 그 중양의 7월 보름을 중원이라 하였다. 망혼일은 돌아가신 어버이에게 그해에 난 새로운 과실을 먼저 올리라는 천신(薦新)을 한 데서 유래하는 이름이다.

#### ◇우란분절의 현대적 실천

고려가요 '동동'에도 7월 백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라와 고려시대의 백중에는 일반인들까지 참여하는 성대한 우란분절 행사가 벌어졌다 한다. 이 백중과 불교의 우란분절이 시기적으로 일치되어 서로 함께 어우러지면서 전통문화 속에서 우리의 중요한 민속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란분절에는 다양한 민속이 전해져 오는데 이를 오늘날 새롭게 조명하면 대체로 조상을 기리는 효도의 날, 풍요로운 노동절, 방생과 공양의 날로 규정지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불자들은 우란분절에 사찰에서 자신의 조상만을 위한 소극적이고 개별적인 천도재를 지내는 데 열중한다. 우란분절은 넓고 적극적인 천도법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몇몇 사찰에서 노인들을 위한 효도잔치 등 작은 노력들을 보이고 있지만 보다 더 확산되어야 한다. 넓은 의미의 조상인 우리의 선조와 애국선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또한 풍요로운 민속노동절로서의 전통을 이어 현대의 노동자들과 하나되어 불교적 기쁨을 이루는 날이 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방식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서 공덕 쌓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불자들은 번뇌망상을 여의고 참 마음을 드러내어, 육도윤회의 고히로부터 벗어나는 데 수행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즉 모든 불교수행의 목적은 탐·진·치 삼독으로 물들어 있는 중생의 마음을 정화하여 본래의 마음,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니, '참마음'이란 번뇌망상에 물들기 이전의 본래 마음에서 돌아간 상태이다. 하지만 이 마음이 라는 것은 선(善) 쪽 뿐만 아니라 악한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래 물(水)은 모든 생명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성품을 지니고 있지만 더럽고 독한 물질에 오염되면 생명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래 마음도 탐욕, 증오, 미혹 등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마음들로 무명에서 싸이게 되고, 그 망심(妄心)의 독으로 인해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經)의 가르침은 언제나 참마음을 머물러 진리의 세계(解脱)에 들어가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삶의 공덕을, 지닌 마음, 참마음을 순수한 100%의 금이라고 하면 수행은 그 재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의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돌과 금성분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을 뿔아 돌을 걸러내어 금가루만 모으고, 또 금가루를 녹여서 여러 번의 재련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우리도 힘 없는 수행정진을 통해서 번뇌망상과 오랜 생을 거쳐 쌓아온 업장의 지 깊숙한 곳에서 빛나고 있는 참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참선, 열불, 지계, 간경, 참회기도, 보살행 등 여러 가지 수행법으로 역대의 조상스님들과 수행자들이 닦아오고 실천해 온 모든 수행행적들은 이와 같은 참마음, 즉 불성을 드러내어 부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또 망상을 쉬면 번뇌망상의 고뇌가 사라진, 참마음이 드러나지만 그 참마음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면 실천수행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에서도 "진여(眞如)의 성품을 보았다 할지라도 방편을 써서 갖가지로 꾸며

### 법회중계

#### 금강정사 정기법회

(2000년 8월 2일)



지홍스님 <광명 금강정사 주지>

### 가족·친지·이웃위해 자비와 사랑 실천할때 행복한 진여세계 도달

요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신과 자신의 이익에만 매몰돼 주변과 자신의 삶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조차 갖지 못한 채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자신의 일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분노하고 망심이 증오를 일으킵니다. 자기에 집착하고 끝없는 욕망에 이끌려 살다가 좌절되었을 때는 절망하고, 결국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망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은 언젠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 곁을 드러내게 지명할 사실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불자들은 진정한 삶의 성취가 무엇이고 진실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살펴서, 언제나 참마음을 머물러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행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마음을 드러내어 생활 속에서 활용하며 사는

지 않으면 끝내 맑아질 수 없다고 하였듯이 모든 선행을 닦는 수행으로 참마음을 확고히 하여야만 자연스럽게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기도수행을 열심히 하면 망상과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평화롭고 밝은 마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에서는 그릇된 생각과 행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用)이란 가족과 친지, 어려운 이웃들은 물론 모든 존재들과 연결 있는 마음, 자비와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함께 하는 보살행 그 자체입니다. 그 선한 의지를 삶 속에서 실현해야 비로소 좋은 사람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되듯이, 진리의 구체적 실현인 선행을 통해서 번뇌망상과 업장을 여의어야만 진실로 행복한 세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권형진 기자 (jimmy@buddhopia.com)

## 버클리대 불교학 소그룹 활동 눈길

### 세계의 불교학 <29> 미국 ④

미국에는 약 2000여 개의 4년제 대학이 있는데, 대부분 학부교양 과정에 종교학 강좌를 개설하고 세계 종교를 다루며 불교를 가르치고 있다.

이 중에서 주요 불교학 교수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버지니아 대학(홈킨스·그로너·재메노·세나비라트네 교수, 4명), 시카고 대학(레이놀즈·그리피스·에버슨·폴린스 교수, 4명), 하버드 대학(니토미·하다크레·헬리세이 교수, 3명), 콜롬비아 대학(서먼·캠스타인·야베 교수, 3명), 미시간 주립대학(고메즈·로페즈·폴크 교수, 3명), 프린스턴 대학(오베이시크레·스톤·타이저 교수, 3명), 버클리 대학(캠카스터·자이나 교수, 2명), 스탠포드 대학(화울·빌레헬트 교수, 2명), 위스콘신 대학(키오다·소프 교수, 2명), 하와이 대학(체플·칼루파 하나 교수, 2명), 노스웨스턴 대학(본드·야마다 교수, 2명),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프리비쉬·하인 교수, 2명), UCLA(버스웰·보디워드 교수, 2명), 예일 대학(와인스타인 교수, 1명), 코넬 대학(매크래 교수, 1명), 일리노이 대학(그레고리 교수, 1

명), 인디애나 대학(내티에 교수, 1명), 아리조나 대학(짐멜로 교수, 1명) 등이다. 여기에 인접 학문 분야에서 불교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연구소 등을 포함시키면, 미국의 불교학 연구 기관의 수는 수백에 이를 것이다. 한 예로 불교학 연구소(정토진흥

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집중 교육 과정'을 뜻하는데, 버클리 대학의 경우 40여 개의 그룹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버클리 불교학 그룹'은 1972년 박사 과정으로 처음 설치되었는데,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자이니(남동아시아학과) 교수가 이끌고 있는



◇미국 샌디에고 인근 아산에서 대중법회를 봉행하는 미국인 불자들.

버클리 불교학 그룹은 언어학적 배경 및 관련 문화 연구를 강조하고 있어, 범어에 중점을 두는 연구생은 동아시아 언어(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동아시아 언어에 중점을 두는 연구생은 범어를 제2외국어로 교차 선택하도록 한다.

이들 그룹의 교육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우선 불교 관련 원전 해독을 위해 범어, 프라크리트, 팔리, 서장어, 한문 등을 익히고 또 현대 문헌의 비교 연구를 위해 불어, 독어, 중국어, 일어 등도 공부하는 독특한, 인도 불교와 자이나교의 세계적인 대가로 범어와 팔리에 능한 아비달마교학의 전문가이다.

인 학위 논문을 쓸 수 있다. 세 관문을 거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7~8년. 이는 미국 내에서의 다른 인문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 기간과 비슷하지만, 학자와 교수로서의 자질 함양에 강조점을 두어 논문 작성보다는, 그 전 단계인 준비 과정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버클리 불교학 그룹에서 불교를 연구한 학자들은 대부분 교육과정과 미치기 전에 다른 대학의 원수로 임용되는 사례가 많다. 원전과 비교 연구를 거쳐 2차 관문을 통과하면 비로소 3차 관문

### 인도불교 대가 자이니 교수가 지도 7~8년 3차 관문 거쳐야 학위 수여

이 그룹에는 골드먼·반누른베트게·보울더), 법계불교대학·서래대학(대만계·탈마지) 등은 연구사이면서 불교학 교수를 확보하고 석사 학위과정을 설치한 곳이다. 또한 미국의 대학에는 특정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소규모 '연구 그룹'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도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연구 그룹이란 특정 전문 분야를 효과

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집중 교육 과정'을 뜻하는데, 버클리 대학의 경우 40여 개의 그룹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버클리 불교학 그룹'은 1972년 박사 과정으로 처음 설치되었는데,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자이니(남동아시아학과) 교수가 이끌고 있는

갯바위, 소원성취

## 원광 달마도

● 전화주시면 먼저 달마도를 부쳐드립니다.

경명구사 그린달마도 서명·함글·승진

부부회합, 결혼, 건강, 사업성취, 세수대동, 수택차단

지장선원 포교원 (053)982-4976 달마도 문의 011)813-3679

※ 일단 달마도를 받아보시고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반쯤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입금하시면 됩니다.

▶ 국민은행 615-21-0517-898 이 민택

정성과 일이 담긴

국내 최초 특허청에 등록 (제0246178호)

## 승복·법복 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혜법복"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의 의장법에 의하여 의장등록된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고안한 제품이며 **연꽃·옴·민자무늬**를 원단에 직접제작해서 입체적으로 만든 자기도 원단이며 원가를 절감하여 기존제품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매우 활동적이며 개량 한복처럼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교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저희 수혜바퀴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불교발전에 귀의할 것입니다.

▷ 의장 등록증

특별보급가격

저고리	남:85,000
바지	여:80,000
긴조끼	남:45,000
	여:40,000

전국 대리점 모집 (가격표지 면에서 경쟁력 있음)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기원섬유**

대구시 동구 신현 3동 74-1 (청신빌딩1층)

■ 상담전화 (053)764-4114

■ 휴대폰 (011)9850-4400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에 법적 제재를 받음

## 빅-뉴스 피로? 나에게 는 없다!

### LIHIS 건강양말

- 건피부(특히 발이 갈라 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 숙취 해소

건강양말 특허출원번호 0043150

**LIHIS**

### LIHIS 건강숫 양말

- 당뇨에는 더 이상 당이 안 오름
- 원칙외선 차단

건강숫양말 실용신안번호 0165970

**LIHIS**

상담문의

(주) 화동섬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21-116 (053)582-1245

전남북 특판점 062)956-7676~7

동대구 특판점 053)982-4976

"강"은 전문 수제화만을 고집합니다.

우리신을 찾는 "강" **기질**

새로운 개념의 신발

가벼우면서 편안함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스타일 특유적인 전통미와, 승복과 우리옷에 잘 어울립니다.

30년 경력의 장인정신이 숨겨진 정교한 기술로 탄생된 강은 고급수제화의 신화를 만들어 갑니다.

"스님께 선물용·보시용으로 좋습니다."

문의 전화 **080-763-9999 053-564-9989**

전국불교서점, 불교용품점 승복사에서 판매중입니다.

고급수제화 강

제조원: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432 "강"

이화불교사	02)734-1383	웅해미술원	042)274-3727
우미사	051)634-6651	경주불교서점	054)749-1580
고려불교원	051)807-6842	여래원	054)436-0871
삼영불교	053)425-4097	보문불교사	055)741-6709
보문불교	042)253-6446	금강불교사	055)337-5170
봉문승복	053)421-5451	사찰정보	053)982-4976